

모퉁이돌선교회 기도제목(2023.5.29)

1. 중국 소수민족 선교를 위한 기도 / 성경이 디지털로 제작되고 보급되어 읽는 자들마다 눈이 열려 하나님을 아는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반가운 소식을 전합니다. 여기 소수민족들을 위해 준비해 오던 성경 번역을 다 마쳤습니다. 그동안 먼저 번역된 신약성경만을 보급해 왔는데 이제 구약 번역까지 끝냈으니 신구약 통합 성경을 출판하고, 디지털로 만드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보급하려 합니다. 이를 위한 재정이 준비되고 안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현장 일꾼이 기쁨으로 보내온 소식입니다.

스가랴 4장 6-7절에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스룹바벨에게 하신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니 힘으로도 안 되며 능력으로도 안 되고 오직 나의 령으로 된다 이는 만유의 여호와의 이르심이다. 큰 산이여 평지가 될 것이니 그가 머리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웨치기를 은혜 은혜가 거기에 있다 하리라 하신다 하였다” 하신 말씀과 같이 주의 은혜로 소수민족의 언어로 된 성경을 번역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성경이 출판되어 믿는 자들에게 보급될 때, 읽는 자들마다 눈이 열려 하나님을 아는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출판과 디지털로 제작되고 보급되는 모든 과정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흥왕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2. 아랍 선교사역을 위한 기도/ 아랍 땅에 선교사를 보내시고 모두가 안 된다고 하는 장기 비자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방금 1년 거주할 수 있는 비자를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100% 신규 신청은 안 된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은혜입니다. 감사할 따름입니다. 이제 나가서 인터넷을 신청해야겠습니다. 언어 공부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현장 일꾼이 보낸 소식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교지의 비자 발급이 까다로워져서 믿음으로 신청하고 애타게 기다리는 인고의 시간을 견뎠습니다. 이 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해 오던 터에 드디어 본격적으로 사역할 수 있는 여건이 준비되었습니

다. 일꾼의 고백과 같이 이제 하나님께서 복음의 지경을 넓히는 새 길을 열어 주시도록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사야 43장 20-21절에 “이는 내가 광야에 물을 대고 사막에 강을 내여 나의 택한 백성으로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으니 이는 그들로 나를 찬송 하게 하려 함이다” 하신 말씀이 아랍의 모든 민족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극렬하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아랍 땅에 선교사를 보내시고 모두가 안 된다고 하는 장기 비자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구하오니 선교사의 눈을 열어 마땅히 감당해야 할 사역을 알게 하시고, 순종할 때 광야에 생명의 강이 흐르고 주님을 찬양하며 높이는 놀라운 일들로 충만케 하옵소서.

3. 핍박받는 북한 지하교회가 성령에 붙들린 바 되어 끝까지 하나님을 따라가도록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성경책 보고 끼리끼리 사둔 친척끼리 모여서 예수님, 예수님 그랬지. 길다가(그러다가) 티었지(체포됐지).” 지난 4월 말, 순천시 동암리 마을에서 새벽 5시경 성경을 읽으며 기도를 올리던 다섯 명의 예수 모임자들(지하교회 교인들)이 국가보위부 성원들에게 잡혔으며, 현장에서 수십 개의 성경 소책자가 회수됐다고 자유아시아방송이 보도했습니다. 1997년과 2005년에 이은 세 번째 순천시 동암리 지하교회 발각 사건입니다. 핍박받는 북한 지하교회가 성령에 붙들린 바 되어 끝까지 하나님을 따라가도록 기도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당신께 있으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우리는 당신께서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 곧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알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8~69절(남북한병행성경 북한어) 말씀으로 북한 지하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북한 당국의 집요한 기독교 말살 정책에도 예수의 생명을 지닌 지하 교인들을 그루터기로 남겨 두시고, 여전히 구원의 역사를 신실하게 이뤄 가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핍박 중에도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붙좃게 하시고, 성령을 따라 담대히 복음을 전함으로 북녘에 믿는 자의 수가 날마다 늘어나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4. 북한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되어 굶주림과 학대와 고통 중에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며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더욱 명확히 알게 하사 천국을 누리는 심령이 되게 하옵소서.

“북한 당국은 기독교를 정권에 가장 적대적인 종교로 간주한다.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된 북한 주민이 5만에서 7만 명 가량됩니다. 2009년에는 성경을 갖고 있다는 이유로 2살짜리 아이를 비롯한 전 가족이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됐습니다. 1950년 북한 내 종교인은 전체 인구의 24%였는데 탄압으로 2002년에는 0.016%로 급감했다.” 미 국무부가 발표한 ‘2022 국제종교의 자유 보고서’에 실린 내용입니다. 고난 중에 함께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천국을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북한 성도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내가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너의 구원자임이라... 나의 눈이 너를 존귀하고 아름답게 여기고 내가 너를 사랑하므로 너를 대신하여 사람들을 내어주고 너의 생명을 대신하여 나라를 내어줄 것이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이라” 이사야 43장 3~5절(남북한병행성경 북한어) 말씀으로 핍박받는 북한 성도를 위해 기도합니다. 굶주림과 학대와 고통 중에서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며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더욱 명확히 알게 하사 천국을 누리는 심령이 되게 하옵소서. 고난을 통과할 때 정금 같은 믿음으로 나오게 하시고, 못 사람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5. 외부 정보,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이 북한 주민에게 전해져 그들이 진리로 자유케 되기를 기도합니다.

북한 당국이 일부 국경 지역 거주 주민을 대상으로 TV 검열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유아시아방송에 따르면 “회령시, 무산군, 온성군 등지에서 채널을 고정하지 않은 일부 텔레비존을 통해 중국에서 방영하는 한국 영화나 연속극을 시청한다는 사실이 보고돼 요즘 매 세대마다 돌며 텔레비존 채널 고정 상태를 확인하는 집중 단속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외부 정보,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이 북한 주민에게 전해져 그들이 진리로 자유케 되기를 기도합니다.

“내가 당신의 말씀을 지키려고 내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을 가지 않았고 당신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당신의 규례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말씀의 맛이 나에게 얼마나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답니다... 당신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입니다” 시편 119편 1~5절(남북한병행성경 북한어) 말씀으로 북한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 북녘 주민의 영혼이 소생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들이 하나님과 그 말씀을 온전히 의지함으로 꿀보다 더 달고 앞길을 비추는 등과 같은 말씀을 경험하게 하시고, 진리를 따라 살아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북한 내부로 성경이 들어갈 길을 활짝 열어 주사, 진리에 갈급한 모든 이에게 성경이 전해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